

고환율시기, 수출에 전력투구하여 IMF 제약 벗어나자

이 승 원

서울대 명예교수 · 학술원 회원

우리나라가 IMF시대에 진입한 이래 4개월이 경과된 현시점에서, 대부분의 단기채가 장기채로 전환됨으로써 일단 오늘,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는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전 정부의 경제적 실족 직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아주 중대한 상이점이 있다. 그것은 원화의 대미환율이 2배 가까이 인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쟁터에 비유하면 2배나 높은 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수출증대책에 의하여 우리 경제의 회생여부를 갈음할 것이다. 다른 방법들 즉, 금융의 유치는 부채의 증가나 또 다른 경제위기 유발의 위험성이 있고 투자유치는 그것이 실용화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 미우나 고우나 현 경제주체들이 지금의 고회율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수출전선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기업이 도산되고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환율이 상승되면 수출이 증가하는 이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 일례로 1만불의 수입 원자재와 환율인상전 1만불에 상당하는 국내 인건비, 자본비, 원자재비를 투입해서 제작된 물품을 수출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는 종전과 같으면 2만불+ α (이익금)에 매도하게 되는데 환율이 2배로 상승한 현시점에서는 1만불+5천불+ α 로 팔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즉, 5천불의 할인 여유를 갖게 됨으로써 어느 때든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수요가 있는 한 우리의 생산능력껏 수출이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우리와 같은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동남아제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즉, 인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재인 철강, 정유, 비료, 시멘트, 섬유의 생산공장을 위시해서 각종 운반기구인 선박, 철로차량, 자동차의 생산시설, 건설 및 일반기계, 원자료를 포함한 전력시설의 생산공장, 그리고 뒤이어 탄생한 화학공업제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 전자통신공학의 발달로 새로이 등장한 TV를 비롯한 각종 통신기기 및 반도체의 생산과 이의 이용에 의해 탄생한 컴퓨터의 생산시설, 통신기술과 컴퓨터의 결합에 의해 발달한 정보통신 시스템 시설, 제어기술과 컴퓨터가 결합되어 발달한 로봇을 위시한 자동제어생산시설, 그리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최첨단 기술제품의 생산 능력까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선

진국에 못지 않은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수출물꼬가 트이기만 하면 마치 한 공장의 스위치를 켜올 때, 전동기 전체가 일제히 움직이듯이 상기의 모든 제품들이 생산공장에서부터 쏟아져 나와 수출대열에 끼게 될 것이다.

상기한 환율상승에 따른 수출의 증가 현상은 환율이 꼭 2배라서가 아니라 근소한 차이일지라도 경쟁력이 유지될 정도만큼만 높게 유지되면 증가현상은 계속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과다하게 상승된 경우에는 막대한 환차손을 부담하게 되고 수입원자재의 가격양등으로 인해 국내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경쟁력이 유지되는 한도까지는 환율이 인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적인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상대방의 환율이 상승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우리의 환율도 상승시켜 경쟁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남아 경제에 위기가 초래된 근본 원인이 일본의 수출드라이브 정책, 즉 엔화의 저평가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앞으로 G7, APEC, ASEM 등 세계 각국에서 일본 엔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경우 일본의 1995년 85엔/달러에 대해서 우리 원화가 762원/달러일 때 우리의 수출 증가율이 30%였는데 일본 환율이 130엔/달러인 현 시점에서 30%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려면 1143원/달러가 적합하고 일본 엔화의 환율이 120엔/달러가 될 경우는 원화의 환율은 1070원/달러가 적정치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환율 관리상 주의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외화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자유화를 시행할 경우 환율 관리에 어려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자본자유화 실시에는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잘못할 경우 또 다시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는 생산능력껏 수출할 수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금융 System의 불안정이라는 걸림돌 때문이다. 이는 IMF 프로그램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 때

문이라고 사료된다. IMF를 비롯하여 모든 채권국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도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외화를 획득, 외환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최선의 길은 충분한 무역흑자의 실현 일진데, IMF당국에 합리적 산출근거에 의한 수출 추정치를 제시, 이를 납득시키기만 하면 모든 걸림돌은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 수출은 일본의 환율이 50% 높았을 때도 1370억불이었는데 우리 환율이 100% 증가한 현재, 금년도 수출총액 추정치를 7.7%만 상승시킨 1475억 불로 추정한 것은 일본과의 환율차이가 50%일 때 수출액이 30% 차이가 있었던 것에 비해 볼 때 너무나 낮게 잡은 것이다. 아마도 IMF의 제약과 동남아 제국들의 수입력 약화 때문에 풀리지 않을 경우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나 본인이 검토한 결과는 환율이 2배나 상승한 시점에서는 거의 경쟁자가 없을 것이므로 우리 생산능력껏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고로 IMF의 제약이 해소될 경우에는 적어도 50% 정도 증가한다고 보아도 무관할 것이다. 이 경우 그들이 좀더 수출추세를 보고 결정하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은 제약이 풀리지 않은 상태를 보는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서 하루가 천금과 같은 귀중한 나날이다. 그 이유는 기업 도산이 하루 수백 개, 실업자가 하루 수천 명씩 늘어나고 있어 위기회복 이전에 전 산업구조가 무너져 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은 전기한 바 있듯이 외환위기 때문에 오늘·내일을 걱정해야 할 고비는 넘겼고, 환율도 상승상태에 있으므로 모든 힘을 수출에 집중시킬 경우 우리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상기한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즉각적으로 외환위기 발생전의 고성장, 저물가, 저실업률 시대로 회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위기가 극복된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런 수모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 금융기관, 기업, 가계를 망라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방만한 경제운영을 지양하고 하루 속히 선진국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